

▶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상편 ◀

1. 문학 속으로

- (1) 동짓달 기나긴 밤을 (35문제)-----1쪽
- (2) 봄.봄 (47문제)-----12쪽
- (3) 이옥설 (39문제)-----42쪽
-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6문제)-----57쪽

2. 말과 글의 힘

- (1) 한국의 정체성 (34문제)-----84쪽
- (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40문제)-----101쪽

3. 삶에서 책을 찾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30문제)-----123쪽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 (1) 음운 변동 (66문제)-----137쪽
- 한글 맞춤법 (69문제)-----156쪽
- (2) 국어의 역사성 (61문제)-----180쪽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 (1)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32문제)-----199쪽

▶ 빠른 전체 정답-----217쪽

▶ 해설-----22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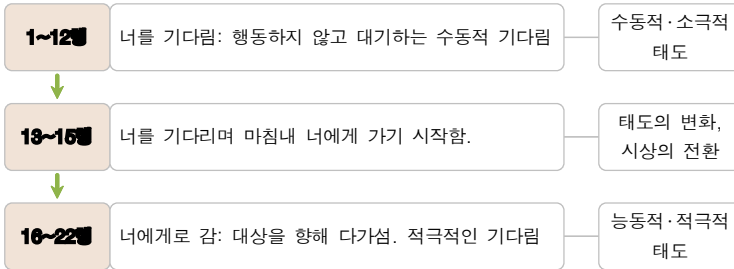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너를 기다리는 동안” 분석 정리

◆핵심 정리◆

•해제: 이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너’를 기다리며 느끼는 설렘,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 등의 정서를 독백조로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고백적, 희망적
- 주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절실함,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 특징: ①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함.
② 기다림의 소극적 태도가 만남에 대한 적극적 태도로 변화함.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간절함을 드러냄.
- 구성:



이 시에 나타난 기다림의 의미는?

시에는 사랑하는 존재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너’이지만 화자는 ‘너’에 대한 기다림을 설렘과 행복하고 충만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찌보면 ‘너’를 만날 미래보다 현재의 기다림을 더 축복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나’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발자국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놀랄 만큼 ‘너’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또한 그것이 ‘너’가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가슴이 아리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너’에게로 갈 만큼 기다림은 절실하고 애잔하다.

◎ 기다림의 대상 - ‘너’

이 시에서 화자가 절실하게 기다리는 ‘너’는 누구일까? 그것은 13행에 드러난 대로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으며, 작가가 작품의 후기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일 수도 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현재에는 부재(不在)하는 어떤 것들, 즉 소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를 ‘너’를 기다리는 행위는 실현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점에서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나’의 마음은 한없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찬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를 절망의 현재로부터 희망의 미래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보여 준 역설적인 깨달음처럼, 부재와 상실이라는 절망적 순간에서 오히려 희망을 건져 올리는 시라고 할 수 있다.

◎ 절망적 순간에서 찾은 희망

소망에 대한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될 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초조와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확인하게 되는 역설적인 것이다. 즉, 오히려 너의 부재라는 절망적 순간에 나의 삶은 두근거리고 빛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드라마의 의미

1. 이 사를 읽고 떠오르는 물음들을 적어 보자.

•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

• ‘너’는 어떤 사람일까?

‘나’가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나’가 사랑하는 사람

•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나’가 사랑하는 이와 만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

2. 햇글의 필자가 이 사에 나타난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밑에 보자.

기다림은 사랑과 희망이지만, 한편으로 불안과 절망, 초조함이기도 하다. 믿음과 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기다리던 대상과 만나게 된다.

3. 너를 기다리는 동안 [문제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동방고등학교 (대전)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현재형의 문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소중한 존재를 기다리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 ㉢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2. 이 글을 읽고 깨달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적절하게 말한 사람은?

- ㉠ 수현 : 이 시를 읽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
- ㉡ 장호 : 이제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 ㉢ 은정 : 힘든 상황에서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
- ㉣ 현경 :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해.
- ㉤ 연정 : 나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주변의 풍경을 함께 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

동방고등학교 (대전)

3. 이 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너'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이로 구체화되고 있다.
- ㉡ '쿵쿵'은 발자국 소리와 화자의 가슴이 뛰는 소리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 '바스락'은 화자의 감각이 청각에 집중된 상태를 보여 주는 말로 '너'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잘 드러내 준다.
- ㉣ '마침내'는 시의 전반부에 언급된 기다림의 결과가 뒤에 이어짐을 안내해 준다.
- ㉤ '아주 먼 데서'는 화자와 '너'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말로, '너'는 화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나) 기다려 본 사람은, 아니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아니다. 기다림이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라는 것을,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 아닌 그 기다림. 그 사이에 희망과 불안이 오가며 불안은 희망을 키우고 희망은 다시 불안을 자라게 한다. 그리하여 앉아서 기다려도 마음은 이미 문밖을 넘어 네가 오는 길목으로 마중을 나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 또한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절망 때문에 또 희망을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 하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초조하다. 기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의지다. 시인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는 게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우리는 드디어 만나게 된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일 수도 있고,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분만실 태아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식당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기다린다. 기다림이란 애타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자유와 평화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지칠 법도 하고 녹슬 법도 한데, 기어이 기다리고 기다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가.

기다리고 싶다. 휴대 전화 없이 마냥 기다려 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녀를, 희망을, 민주와 평화를 진득하니 기다려 보고픈 것이다. 그럼 행복할 것 같다. 어린 왕자처럼. 그것이 다시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4.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함.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함.
- ③ (가)는 시적화자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남 (수동적, 소극적 태도 → 능동적, 적극적 태도)

- ①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착어를 바탕으로 기다림의 의미를 상세히 해설하고 확장함.
- ② (가)는 서정 갈래로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나)는 비평문으로서 기다림은 불안과 절망, 초조함이기도 하며 그래서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함.

동인고등학교 (부산)

5. (가) 작품의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유사한 작품이 아닌 것은?

- ①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 서경덕 -

- ②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다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하고 오노가 가는가 건년산(山) 바라보니 거머뭇들 셔 잇거늘 져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 님 넘빅곰빅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존 디 마른 디 갈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하고 갓눈을 흘긋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갈가 벽긴 주주리 삼대 살드리로 날 소겨거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행혀 낮이런들 남 우일 번하래라.
 - 작자 미상 -

-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 ④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을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 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동인고등학교 (부산)

6. ㉠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기대감 → 초조감, 불안감 → 절망감
- ㉡ 기대감 → 초조감, 불안감 → 간절함
- ㉢ 간절함 → 초조감, 불안감 → 절망감
- ㉣ 간절함 → 지루함 → 절망감
- ㉤ 기대감 → 지루함 → 간절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 바라는 상황을 향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감정적 울림을 폭넓게 하고 있다.
- ㉣ 특정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8.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밑줄 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화자가 내면세계로 몰입하게 되는 계기이다.
- ㉡ ㉠은 외부로부터 화자에게 압박이 가해진 결과이다.
- ㉢ ㉠은 화자가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계기이다.
- ㉣ ㉠은 소극적이었던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환된 결과이다.
- ㉤ ㉠은 현실에서 좌절을 느낀 화자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계기이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 ㉡에는 화자의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 ㉢ ㉢에서는 설의적 표현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 ㉣에서 화자의 확신은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

양명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신새벽 뒷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통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벼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음운의 민중” 필력 명칭

• 음운 변동의 개념과 음운 변동 이유

개념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음운 변동의 이유	대개 발음의 편의 때문

• 음운 변동의 종류

술그머니 달라지는 음운 (교체)	비음화	비음이 아닌 소리 ‘ㄱ, ㄷ, ㅂ’이 비음 ‘ㄹ, ㄴ’ 앞에서 비음(‘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① 국민→[궁민], 받느→[반느], 밥물→[밤물]
	유음화	‘ㄴ’이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 ① 신라→[실라], 권력→[권력], 생일날→[생일랄], 단련→[달련]
	원소리 되기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평음)가 ‘ㄱ, ㄷ, ㅂ, ㅅ, ㅈ’ 같은 된소리(경음)로 바뀌는 현상 ① 학교→[학교], 단지→[단찌], 잡고→[잡꼬] 신고→[신 : 꼬], 감다→[감 : 따] 물질→[물짚], 발달→[발딸]
술그머니 달라지는 음운 (교체)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 되는 현상 ① 굳이→[구지], 곧이→[고지], 같이→[가치]
	두음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① 쾌락(快樂)/낙원(樂園) 왕래(往來)/내일(來日)
은폐간데 없는 음운 (법칙)	‘ㄴ’ 탈락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ㄴ’가 ‘ㅌ, ㄱ’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① (문을) 잠그- + -았- + -다→잠갔다 (글씨를) 쓰- + -었- + -다→썼다
	두음법칙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이 제약되는 현상 ① 작년(昨年)/연도(年度) 공리(公利)/이용(利用)
느닷없이 나타나는 음운 (첨가)	반모음 첨가	원래는 없던 음운이 발음 과정에서 덧붙는 현상인 ‘첨가’ 중 ‘반모음 첨가’는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또는 ‘학교에→[학교에]’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덧붙는 현상 ① 피어라→[피어라/피어라] (바닥을) 기- + -어 → 기어[기어/기어] 연휴에→[연휴에/연휴에]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축약)	거센소리되기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축약 중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① 줄고→[조 : 코] 울다→[울타] 많지→[만 : 치]

“음운의 민중” 문제집 명칭

1. 다음 문장을 발음해 본 후, 음운 변동에 관해 탐구해 보자.

(1) 밑줄 친 밑줄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표기	발음	일어난 음운 변동의 이름
날고	[나 : 코]	거센소리되기
실날	[실 : 랄]	유음화
해돋이	[해도지]	구개음화
국밥	[국빡]	원소리되기
국물	[궁물]	비음화

(2) 다음의 경우를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표기	발음
먹은	[머근]
맛을	[마슬]
잇을	[이즐]

‘먹은[머근], 맛을[마슬], 잇을[이즐]’의 경우 뒤 음절인 ‘은’이나 ‘을’의 초성 ‘ㅇ’은 음가(音價)가 없기 때문에 앞 음절의 받침이 그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었을 뿐, 음운이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줄어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2. 다음의 자음 체계표를 참고하여, 문법 수업을 마친 두 친구 간의 대화를 원상해 보자.

국어의 자음 체계표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	여린	목청소리
			(순음)	(치조음)	입천장소리(경구개음)	입천장소리(연구개음)	(후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ㅂ	ㅃ		ㅍ	
		된소리(경음)	ㅃ	ㅆ		ㅑ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ㅊ		
		거센소리(격음)			ㅉ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혜진 ‘굳이 나랑 같이 가려고?’라는 문장을 발음할 때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아?
 상우 ‘굳이’랑 ‘같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배웠잖아.
 혜진 오호, 제법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운 환경에서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건지도 설명할 수 있어?
 상우 ‘굳이 → [구지], ‘같이 → [가치]’처럼 발음되니까,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 ㅉ) ’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혜진 맞아.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는 왜 일어나는 건지 생각해 봤니?
 상우 다른 음운 변동처럼 이것도 (발음하기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혜진 맞아. 자음 체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변동은 (잇몸소리(치조음))가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으로 바뀐 것인데, ‘ㅣ’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는 잇몸소리보다는 센입천장소리가 발음되는 곳과 더 가깝거든.
 상우 아하, 발음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고마워. 네 덕분에 문법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어.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입	•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니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개	(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 (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리	•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팍]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뉘뉘].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꺄력짜]는 촌장이었다.

- ㉠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분얼만 크다.
- ㉣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한글 맞춤법” 필독 명제

● 한글 맞춤법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문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소리대로 적음.	한글은 표음 문자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임. ㉠ 구름, 나무, 달리다
어법에 맞도록 함.	우리말은 사용 환경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의미 이해를 위해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의도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더해짐.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소리나는 대로 적어 어법에 어긋난 경우</div> 이리케까지(X) / 이렇게까지(O) 엽따(X) / 엇다(O) 열썸히(X) / 열심히(O)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원형을 잘못 추측하여 어법에 어긋난 경우</div> 마음이 절인다(X) / 마음이 저린다(O) 어의가 없다(X) / 어이가 없다(O) 일해라 절해라 참견 말아야겠다(X) / 이래라저러라 참견 말아야겠다(O) 열심히 하는 것이 낱을 거야(X) / 열심히 하는 것이 <u>나</u> 을 거야(O)

• 띄어쓰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나 한테(X), 나한테(O)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하는게(X), 하는 게(O)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옷 한벌(X), 옷 한 벌(O)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두시 삼십분 오초 16돌 502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되, ㄴ을 허용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ㄱ</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ㄴ</td> </tr> <tr> <td>들어 보니(원칙)</td> <td>들어보니(허용)</td> </tr> </table>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그가 올 듯도 하다. / 책을 읽어도 보고……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 잘난 체를 한다.	ㄱ	ㄴ	들어 보니(원칙)	들어보니(허용)
ㄱ	ㄴ				
들어 보니(원칙)	들어보니(허용)				

• 소리에 관한 것

-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기다, 기쁘다, 깨끗하다 2.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짚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깎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	--

4-(1) 한글 맞춤법 [이론편]

• 형태에 관한 것

- 어간과 어미

제15항	<p>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p> <p>㉠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p> <p>[붙임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p> <p>(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얽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p> <p>(2) 본뜻에서 멀어진 것 ㉢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p> <p>[붙임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이것은 책이오.(O) / 이것은 책이요.(X)</p> <p>[붙임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p>
-------------	---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p>어간에 '-이'나 '-음/-로'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깊이, 묽음, 얇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굵도리, 무녀리, 거름</p>
제22항	<p>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얽히다, 돌우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 (칼로) 도리다 / (세금을) 바치다 / (내일로) 미루다</p>

• 사이시옷 현상에 관한 규정

제30항	<p>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적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잇자국, 자릿세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뒷머리, 훗날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 뒷일, 예삿일 그 밖에도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다음과 같은 여섯 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	---

“한글 맞춤법” 모의시험 문제집

1. 다음과 같은 ‘한글 맞춤법’ 조항에 반영된 의도를 설명해 보자.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를 표기하는 한글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 다음 중 옳은 것은 ○ 포, 틀린 것은 X 포를 해 보자.

- 보조 용언은 앞말에 붙여 쓸 수 없다. (X)
- 파생어에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대체로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
-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는 모음으로 끝나는 앞말의 끝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

3.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특지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 ‘들자리’와 ‘돛자리’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돛자리’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출산랴’와 ‘출산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랴, 룰’은 ‘열, 울’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출산울’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짜전’과 ‘찰전’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 ‘끝소리가 ‘ㄹ’인 말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짜전’이 옳바른 표기이다.

• ‘넉넉지 않다’와 ‘넉넉지 않다’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넉넉지 않다’가 옳바른 표기이다.

4. 아래의 문장들을 바르게 띄어 써 보자.

• 나만큼이나 그녀도 첫사랑의 기억을 지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나만큼이나 그녀도 첫사랑의 기억을 지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 이걸 사려면 지금 당장 오만원 내지 오만원 팔천 원이 필요해!

이걸 사려면 지금 당장 오만 원 내지 오만 팔천 원이 필요해!

5. 아래의 표기를 바르게 수정해 보자.

•이 표기는 읽을 때든지 쓸 때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표기는 읽을 때든지 쓸 때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6. 다음 빈칸을 채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올바른 표기	뜻	그렇게 생각한 이유
놀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놀다’라는 용언 어간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음.
노름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어간의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7. 다음 그림 속의 표기법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보고, 그것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 보자.



- 진열되 있음. → 진열돼 있음: ‘진열되어’가 줄어든 것이므로 ‘진열돼’로 써야 하고, ‘있-’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으로 써야 함.
- 또먹고 치킨 → 또 먹고 치킨: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로, ‘된소리되기’라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되므로 원형을 밝혀 ‘먹고’로 적어야 함. ‘또 먹고’로 띄어쓰기 해야 함.
- 더차칸 만두 → 더 착한 만두: ‘칸’의 ‘ㄱ’은 ‘ㄱ’과 ‘ㅎ’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로, ‘거센소리되기’라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되므로 원형을 밝혀 ‘착한’으로 적어야 함. ‘더 착한’으로 띄어쓰기 해야 함.
- 고기집 → 고깃집: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고기집/고깃집]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함.
- 어서 오십시오. → 어서 오십시오: 종결 어미 ‘-오’는 반모음 첨가로 인해 ‘요’로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함.

8. 다음 시를 V표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해 보자.

가정(家庭)

이상

문(門)을삼만잡아당겨도안열리는것은안에 생활(生活)이모자라니까답이다. 밤이사나운꾸지람으로나를조른다. 나는우리집내문패(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 나는밤속에들어서서제웅처럼자꾸만감(減)해간다. 식구(食口)야봉(封)한창호(窓戶)어메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수입(收入)되어들어가기아하지않다. 지붕에서리가내리고 뽕죽한데는침(鍼)처럼월광(月光)이뿔었다. 우리집이않나보다그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다. 수명(壽命)을혈어서전당(典當)잡혀나보다. 나는그냥문고리에쇠사슬늘어지듯매어달렸다. 문을열려고안열리는문을열려고.

4-(1) 한글 맞춤법 [이론편]

문(門)을V암만V잡아당겨도V안V열리는V것은V안에V생활(生活)이V모자라는V까닭이다. 밤이V사나운V꾸지람으로V나를V조른다. 나는V우리V집V내V문패(門牌)V앞에서V여간V성가신V게V아니다. 나는V밤V속에V들어서서V제옹처럼V자꾸만V감(減)해V간다. 식구(食口)야V봉(封)한V창호(窓戶)V어테라도V한구석V터놓아V다고V내가V수입(收入)되어V들어가야V하지V않나. 지붕에V서리가V내리고V뽀족한V데는V침(鍼)처럼V월광(月光)이V물었다. 우리V집이V알나V보다V그리고V누가V힘에V겨운V도장을V찍나V보다. 수명(壽命)을V헐어서V전당(典當)V잡히나V보다. 나는V그냥V문고리에V쇠사슬V늘어지듯V매어V달렸다. 문을V열려고V안V열리는V문을V열려고.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 칼국수를 먹어야 하니 깍뚜기를 듬뿍 담아라.
- ㉢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뭔가진실한걸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겁니다.

- ㉠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 ㉣ :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 ㉤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윤아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윤아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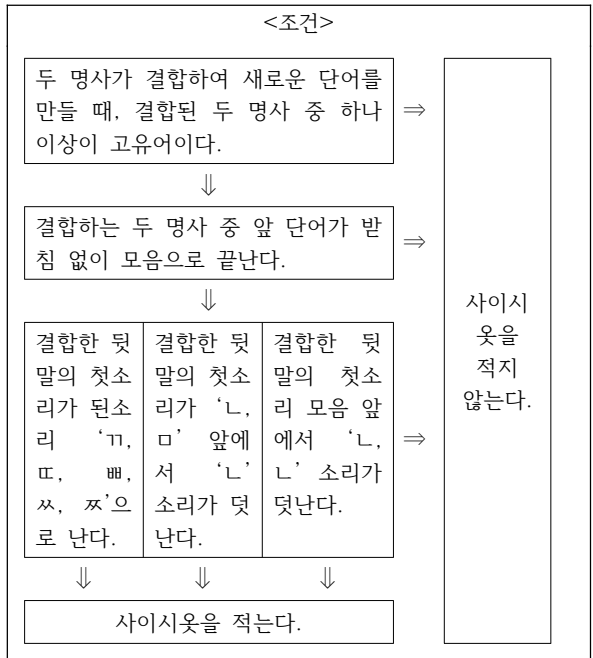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 강철
- ㉡ 어준
- ㉢ 아영
- ㉣ 순이
- ㉤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되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돼’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헛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싹싹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금 회전률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촛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을’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 확율(確率), 실패률(失敗率)
 ㉤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겨(X), 놓아(○)/노코(X)

“국어의 역사성” 핵심 정리

•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사회성	뜻과 소리의 관계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성질
역사성	언어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성질

• 「훈민정음」 서문에 드러나는 한글의 창제 정신

자주정신	우리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 통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문자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예민 정신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겪고 있는 고충을 헤아리고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실용 정신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쓰기에 편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실용적인 태도

• 「훈민정음」(안해본) 서문을 통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로쓰기 • 이어적기 • 띄어쓰기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쓰기 • 끊어적기 • 띄어쓰기 있음.
음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빙’ 등의 음운이 존재함. • 성조가 있었고 방점으로 이를 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빙’ 등의 음운이 소실되고 없음. • 성조가 사라지고 없으며 이를 표기하던 방점도 사라짐.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국어에는 없는 단어가 존재함. • 현대 국어와는 뜻이 다른 단어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국어에는 있던 단어가 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뭇디, 전 초 • 중세 국어와 의미가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리다(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어엿쁘다(불쌍하다 → 예쁘다) 놈(사람 → 남자나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짐. ㉠ 爲령후야 •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예’가 쓰임. ㉡ 中동國국에 • 주격 조사 ‘가’가 없었음. ㉢ 바 + →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 조화가 많이 사라짐. •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과’를 씀. •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됨.


“당대의 역사성”으로서의 문자

1.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그러한 특성이 드러난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뜻과 소리의 관계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골]이라고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 언어의 역사성: 사회성을 지닌 언어의 뜻과 소리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어리다’가 중세 국어 시대에는 ‘어리석다’의 뜻이었다가 이후 ‘나이가 적다’의 뜻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언어가 역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예에 해당한다.

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와 음운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국어의 변화를 알아 보자.

(1) 다음의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고, 표기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표기 방식상 국어의 변화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가로쓰기를 함. •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함. • 중세 국어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한글 위주로 씀.

(2) 현대의 ‘한글 맞춤법’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중세 국어의 표기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을 말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표기 방식상 국어의 변화
·노미	놈이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함.
·부메	섬에	
썩르·미니·라	따름이니라	

(3) 훈민정음의 표기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음운을 찾아보자.

· · , ㅇ, ㅁ, ㅅ

(4) 다음의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고, 음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음운상 국어의 변화
사름	사람	• 중세 국어에 있던 ‘(·)’, ‘(ㅁ)’이 사라짐.
:수비	수이(→ 쉬)	• 중세 국어에 있던 성조가 사라짐.

3. 중세 국어에서 다음 어휘가 지녔던 뜻을 적고, 현대 국어에서의 뜻과 비교해 보자.

중세 국어 어휘	중세 국어에서의 뜻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
말씀	말[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은.
놈	사람	남자나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어엿쁘다	불쌍하다	‘에쁘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4.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상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국어의 변화를 알아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문법상 국어의 변화
中 國 國 語 에 달 아	→	중국과 달라	비교 부사격 조사가 '에'에서 '과'로 바뀜.
흥 배	→	하는 바가	주격 조사 '가'가 생김.
爲 營 亨 아	→	위하여	잘 지켜지던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게 됨.

5.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자료들을 검토한 뒤, 질문에 답해 보자.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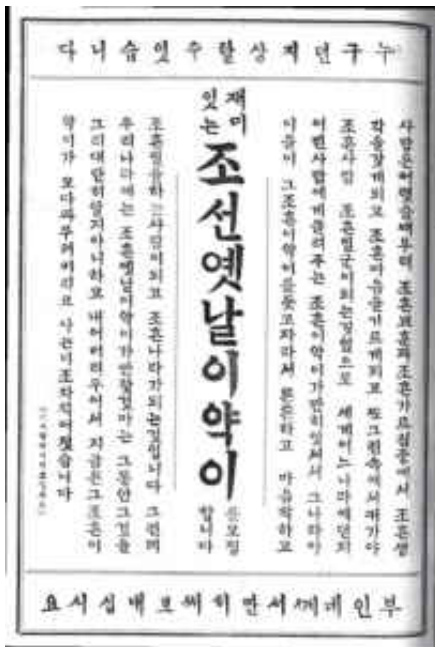


<순진>

아이: (엄마 손을 남탕 쪽으로 잡아 끌며)
“어머니 일루 가치기”

-『조선일보』

[자료 2]



-『부인』1권 4호(1922년 9월)

[자료 3]



-『부인』1권 4호(1922년 9월)

(1) '자료 1'에서 아이가 한 말 중 밑줄 친 부분을 오늘날의 표기에 맞게 고쳐 써 보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인지 말해 보자.

오늘날의 표기	'자료 1'의 표기에 반영된 음운 변동
같이 가	구개음화

(2) '자포 2'의 글을 다음과 같이 오늘날의 표기에 맞게 바꿔 쓴다고 할 때 빈칸을 채워 넣어 보자.

'자포 2'의 내용	오늘날 표기에 맞게 바꿔 쓴 글
<p>“누구던지상탈수있습니다 부인네께서만히써보내십시오”</p> <p>재미있는조선옛날이야기를모집합니다</p> <p>사람은어렸을때부터 조혼교훈과조혼가르침중에서 조혼생각을갖게되고 조혼마음을기르게되고 쏘그런속 에서커가야 조혼사람 조혼일군이되는것임으로 세계어 느나라에던지 어린사람에게들려주는 조혼이야기가만 히잇서서 그나라아이들이 그조혼이야기를듣고자라서 튼튼하고마음착하고 [하략]</p>	<p>“누구든지 상 탈 수 있습니다. 부인네께서 많이 써 보내십시오.”</p> <p>재미있는 조선 옛날이야기를 모집합니다.</p> <p>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 중에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기르게 되고 또 그 런 속에서 커 가야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므로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어린 사 람에게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나라 아이들이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튼튼하고 마음 착하고 [하략]</p>

(3) '자포 8'의 동요 가시(가)와 오늘날의 표기에 맞게 고쳐 쓴 가시(나)를 비교하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나)
형제별	형제별
<p>1. 날저무는 하늘에 별이삼형제 뽀적뽀적 정답게 지-내더니</p> <p>2. 원일인지 별하나 보이지안코 남은별이 돌이서 눈물흘린다</p>	<p>1.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 형제 뽀작뽀작 정답게 지-내더니</p> <p>2. 원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돌이서 눈물 흘린다.</p>

• 가에서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를 찾아보자.

‘뽀적뽀적’의 ‘뽀’

• 가에서 거센소리타가를 표기에 반영한 경우를 찾아보자.

‘안코’

• 가와 나의 띄어쓰기를 비교해 보자.

(가)는 띄어쓰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달리 (나)는 단어마다 띄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미 이해가 쉽고 잘 읽힌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製訓蒙民正正音韻

㉠나라:말쓰미 ㉡中庭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와로 서르 슷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 아셔도 ㅁ·츄:내제 ·쁘·들 시러 퍼디 :물·홀 ·노·미 하 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중·를 ㅁ·ᄫ·ᆯ·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한·크 ᄫ·고·져 홀 썩·르·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 ㉣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의 ‘ㅅ’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군.
- ㉣ ㉣의 ‘하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 ‘사맛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 소멸의 예이다.
- ㉢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 of 예이다.
- ㉤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부 소리 두외느니라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ᄫ와 ᄫ와 ᄫ와 ᄫ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와 ᄫ와 ᄫ와 ᄫ와 ᄫ와란 ㉢울흔녀그 브터 쓰라.

[현대어 풀이] ·와 -와 ᄫ와 ᄫ와 ᄫ와 ᄫ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ᄫ와 ᄫ와 ᄫ와 ᄫ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 | | | |
|-------------|-------|-----|
| ㉠ | ㉡ | ㉢ |
| ㉠ 文文字字 | 나랏 | 퍼디 |
| ㉡ 百·백·姓·성이 | ᄫ고져 | 니겨 |
| ㉢ ㅁ·ᄫ·ᆯ·노·니 | 이런 | 달아 |
| ㉣ 히여 | ㅁ·츄·내 | 시러 |
| ㉤ 수·비 | 물·홀 | 하나라 |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필독 명필

◆핵심 정리◆

종류	
성격	객관적, 구체적, 분석적, 해설적
제제	르네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
주제	데페이즈망 기법의 개념과 형식,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을 뒷받침함.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함.

•구성

머리말	르네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에 대한 관심
본문	데페이즈망 기법의 개념과 형식, 의의
맺음말	데페이즈망 기법이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글의 흐름

머리말	1문단: 르네 마그리트에 대한 소개 2문단: 르네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에 대한 관심
본문	3문단: 데페이즈망의 개념과 사례 4문단: 「골콘다」를 통해 살펴본 데페이즈망의 느낌 5문단: 「골콘다」에 나타나는 데페이즈망적 형식 6문단: 파괴의 형식으로서의 데페이즈망 7문단: 파괴의 의의 - 창조의 형식과 방향을 결정함. 8문단: 데페이즈망에 의한 창조 형식의 다채로움과 무한성 9문단: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형식과 그 사례 ① -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적용된 「레슬러의 무덤」 10문단: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데페이즈망적 시도를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 11문단: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형식과 그 사례 ② - ‘결합’의 형식을 적용한 「기억」
맺음말	12문단: 데페이즈망 기법이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 문화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임.

•데페이즈망의 개념

- ‘전치(轉置)’로 번역됨.
-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함.

• 「골콘다」에 적용된 데페이즈망 기법에 대한 분석



- 중력을 제거함(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그림).
- 사람들이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음.

• 데페이즈망 형식의 다채로움과 무한함

- 파괴의 형식 = 창조의 형식
- 파괴의 형식으로서 데페이즈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 줌. 데페이즈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
- 데페이즈망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사례: 마그리트의 그림에 관한 ‘시란 알렉상드리아’와 ‘수지 개블릭’의 견해

• 예술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의 사례



「레슬러의 무덤」

-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의 기법이 적용된 작품
- ↓
- 핵심 사업 부분을 처분하고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화장지 사업에 집중하여 성공한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



「기억」

-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혹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과 같은 결합의 형식이 적용된 작품
- ↓
- 스마트폰, 서커스에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의 각종 융합 상품의 개발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르네 마그리트 그림

1. 이 글에 제시된 마그리트의 그림이 관람객에게 주는 효과를 정리해 보자.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킴.



장미가 살아 있는 느낌을 주며, 창밖에 낯선 세계가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들.



조각상과 피의 결합이라는 낯설음 통해 보는 사람이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만들.

2.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읽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읽을지 이야기해 보자.

읽는 목적	읽기 방법
이 글을 요약하기 위해 읽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어를 찾고,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며 읽는다.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다. 주요 개념, 개념과 연결되는 설명,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시키며 읽는다.
이 글의 필자와 면담을 하기 위해 읽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자가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읽는다. 필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만들어 가며 글을 읽는다. 스스로 이 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필자와 면담 시 자신의 평가에 대한 필자의 소감을 묻기 위해)
르네 마그리트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읽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네 마그리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읽는다.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 기법인 데페이즈망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는다. 데페이즈망 기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글에 제시된 그림이 갖는 특징을 생각하며 읽는다.

3. 다양한 특자의 입장에서 다음 문단을 읽는 목적을 정하고 그에 적합한 읽기 방법을 찾아보자.

특자	읽는 목적	읽기 방법
화가	데페이즈망의 기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에 소개된 데페이즈망 기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다른 기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본다. 초현실주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본다. 데페이즈망 기법과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교육자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데페이즈망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하며 읽는다.

특자	읽는 목적	읽기 방법
기업인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법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페이즈망 기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로 토론하며 읽는다.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례를 수집해 본다.

4. 다음을 참고하여, 이 글의 필자가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지 파악해 보고 그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이 책은 작품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의 배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술 작품과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보여 주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이 책의 집필 목적이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에서 미술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낱알이,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 이 책의 지식과 정보의 양은 책의 두께만큼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물리적 한계 안에서 특정한 범주로 체계화되어 있기보다는 깊이의 면에서나 종류의 면에서 어찌 보면 널뎠듯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미술과 관련한 지식의 다채로운 모습과 범위를 부담 없이 구경하고 거기에서 독자 나름의 유익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에서

(1)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어떤 재료를 세웠는지 정리해 보자.

글의 목적	미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함.
주제	미술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대상 독자	•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독자 • 작품의 가치를 알아내는 능력 배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에 관심이 있는 독자

(2) (1)에서 정리한 필자의 쓰기 태도를 고려할 때,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자.

이 글에서는 르네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데페이즈망 기법과 관련된 그림은 물론 그림에 적용된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집필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한 여러 가지 기법 중 일부만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는 이 글을 읽는 데 다소 불편함을 갖게 한다.

5. '창의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다음 읽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자.

연결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연필 + 지우개', '휴대 전화 + 카메라', '신발 + 바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연결은 '물리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연결은 약간의 변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예전에 아이스크림을 팔던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아이스크림은 남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팔던 접시가 다 떨어져서 더는 아이스크림을 팔 수 없었다. 그는 즉흥적으로 옆에 있는 와플 가게에 가서 와플을 얻어다가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팔았다. 다행히 손님들은 모두 만족해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평소대로 접시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팔았는데, 몇몇 손님이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연결하는 것이 손님들에게 통한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안정되게 담아 팔았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콘이 개발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물리적 연결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개념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보통 연결해 생각하지 않는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연결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을 만든다.



왼쪽의 광고를 보자. 광고에서는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과 몽크의 「절규」를 단순하게 위아래로 배치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광고의 문안을 써넣었다.

아름다운 선율도 아름다운 이웃에게는 다른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익 광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 두 편을 단순하게 연결해 중간 소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끼리 연결 고리를 만들어 조합하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다. 따라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봐야 한다. 그런 노력이 창의력을 만들 수 있다.

- 박종하,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에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3

5-(1)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이론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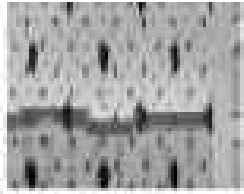
주제	주요 개념	구체적인 사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리적 연결	아이스크림콘의 탄생 (와플+아이스크림) • 눈에 보이는 사물을 연결시키는 것 • 연필 + 지우개, 휴대 전화 + 카메라, 신발 + 바퀴
	개념적 연결	•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연결하는 것 • 「피리 부는 소년」 그림과 「절규」 그림을 상하로 배치하고 층간 소음 관련 광고 문안을 연결함.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피카비아의 그림(피카비아, 1925, 유채, 81x70cm, 프랑스 국립 미술관)

‘낯선 그림’의 대명사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십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세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낸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위에 언급한 「골콘다」를 통해 데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 보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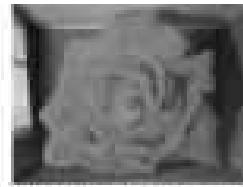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 버렸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적이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 버린다.

<중략>

㉢파괴의 형식으로서 데페이즈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다. 데페이즈망이 보여 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다.

그 말은 데페이즈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이 된다. 프랑스의 미술사가 ㉣사란 알렉상드리아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형식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생명체를 사물화하기, 해부학적 왜곡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개블릭은 사물을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 놓는 고립, 불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이의어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관한 경험을 왜곡한 이중 시점 등을 마그리트가 구사한 대표적인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꼽는다. 파괴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지만, 그것이 곧 창조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법 가운데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적용된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자. 「레슬러의 무덤」은 장미 한 송이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그림이다. 오로지 꽃의 크기만 변화시켰을 뿐인데 평범한 일상이 낯선 상황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그러나 이 일상의 파괴는 공간 안에 새롭고 신비한 기운을 가득 불러온다.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장미가 살아 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올 것 같다. 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본다면 더 불가사의하고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탐험은 시작되고 또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 레슬러의 무덤(피카비아, 1924, 유채, 81x70cm, 개인 소장)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일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모험에 나서는 이런 데페이즈망적 시도는 예술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곧잘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화장지 사업에 집중한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가 그런 것이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은 원래 제지 사업이었다. ㉥화장지 같은 위생 용품은 매출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1년 이 회사의 대표는 아직은 미미한 화장지 산업에 회사의 장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 사업 부문을 과감히 처분해 버렸다. 이 ‘파괴’에 놀라 주가가 급락하고 증시 분석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는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 파괴의 형식은 이렇듯 창조의 형식인 것이다.

(나) 연결이라고 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연필+지우개’, ‘휴대 전화+카메라’, ‘신발+바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연결은 ‘물리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연결은 약간의 변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예전에 아이스크림을 팔던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아이스크

림은 남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팔던 접시가 다 떨어져서 더는 아이스크림을 팔 수 없었다. 그는 즉흥적으로 옆에 있는 와플 가게에 가서 와플을 얻어다가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팔았다. 다행히 손님들은 모두 만족해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평소대로 접시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팔았는데, 몇몇 손님이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연결하는 것이 손님들에게 통한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안정되게 담아 팔았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콘이 개발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물리적 연결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개념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보통 연결해 생각하지 않는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연결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을 만든다.



왼쪽의 광고를 보자. 광고에서는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과 몽크의 「절규」를 단순하게 위아래로 배치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광고의 문안을 써 넣었다.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익 광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 두 편을 단순하게 연결해 층간 소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끼리 연결 고리를 만들어 조합하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다. 따라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봐야 한다. 그런 노력이 창의력을 만들 수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어울려서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 ㉡ ㉡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말한다.
- ㉢ ㉢은 파과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과 ㉤은 데페이즈망의 형식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언급된 것이다.
- ㉤ ㉤은 르네 마그리트 작품 「레슬러의 무덤」의 '장미'에 대응되는 것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가)의 글쓰기 전략으로 올바른 것만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질문의 형식을 통해 글쓴이가 소개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데페이즈망 기법이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된 예를 제시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 ㉣ 데페이즈망의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가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데페이즈망 기법의 전형적인 표현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가락고등학교 (서울)

3. (가)를 읽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르네 마그리트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읽을 때는 글에 제시된 그림이 갖는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야 해.
- ㉡ 화가가 데페이즈망 기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읽는다면 데페이즈망의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해.
- ㉢ 필자와 면담을 하기 위해 읽을 때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만들어 가며 읽는 것이 필요해.
- ㉣ 이 글을 요약하기 위해 읽을 때는 주요 개념, 개념과 연결되는 설명,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시키며 읽는 것이 도움이 돼.
- ㉤ 사업가가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읽을 때에는 데페이즈망 기법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면서 읽는 것도 바람직해.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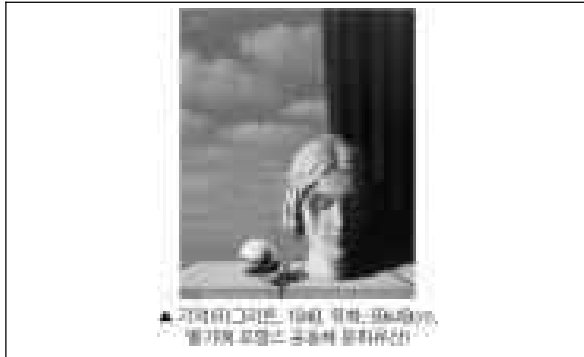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나)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글의 첫머리에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핵심 화제에 대한 통념을 언급하고 그러한 통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어떤 사실이나 현상, 원리, 지식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쓴 글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5. 아래 작품 『기억』에 사용된 데페이즈망 기법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 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낸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답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 해제해 버린다는 측면에서 데페이즈망은 파괴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파괴의 형식은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고 파괴의 결이 창조의 결로 이어진다. 파괴는 무차별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데페이즈망이 보여 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다. 그 말은 데페이즈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이 된다. 프랑스의 미술사가 사란 알렉상드리아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형식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생명체를 사물화하기, 해부학적 왜곡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같은 결합의 형식은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파괴와 창조의 형식이다. 『기억』은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창턱 위에 석고 두상과 나뭇잎, 방울 형태의 구가 놓여 있는 그림이다. 특이한 것은 석고상의 관자놀이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제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아닌 조각상이 피를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각과 피의 결합이 낯설기에 이 그림 또한 일상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상상의 무한 지대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이나 서커스에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 각종 융합 상품에서 우리는 이런 데페이즈망적인 결합의 산업적 성취를 본다. 그런 점에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데페이즈망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는 기이하고 낯설지만 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데페이즈망은 문화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는 낯설기만 했던 마그리트의 예술이 갈수록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구미고등학교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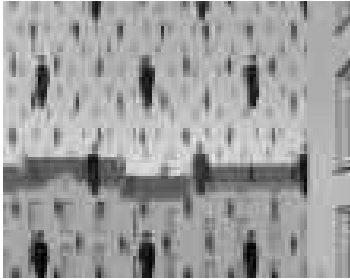
6. 밑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데페이즈망 기법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데페이즈망 형식 중 창조의 형식과 파괴의 형식은 어떤 점이 다른가?
- ③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적용한 미술 작품의 사례는 무엇일까?
- ④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를 사용해 의학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는 무엇일까?
- ⑤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프랑스 화가의 이름은 무엇인가?

구미고등학교 (경북)

7. 윗글의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 그림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그림은 마그리트가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해 그린 「콜콘다」이다.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으며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 ① <보기>처럼 데페이즈망 기법을 다양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록 그림의 가치는 높아지는군.
- ②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자들을 통해 현실을 파괴하는 방식의 무차별성을 깨닫게 되겠군.
- ③ 로트레아몽은 <보기> 작품이 통념을 바탕으로 기이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겠군.
- ④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 쓴 남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방식은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겠군.
- ⑤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남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논리와 합리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겠군.

구미고등학교 (경북)

8. <보기>에 나타난 필자의 쓰기 맥락을 고려할 때 윗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적절히 평가한 것은?

<보기>

이 글은 미술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작품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의 배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쓴 글로 미술 작품과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보여 주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미술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낱낱이,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 이 글의 지식과 정보의 양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특정한 범주로 체계화되어 있기보다는 깊이의 면에서나 종류의 면에서 어찌

보면 널뛰듯 자유롭게 구성 되어 있다. 미술과 관련한 지식의 다채로운 모습과 범위를 부담 없이 구경하고 거기에서 독자 나름의 유익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중에서

- ㉠ 글의 목적 : 다양한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였으므로 글을 쓴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어.
- ㉡ 글의 종류 : 설명문이라는 글의 성격에 맞지 않게 작가의 주관적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
- ㉢ 정보의 양 : 데페이즈망의 다양한 기법이 소개 되었지만 여러 기법 중 일부만 설명해 주어서 정보의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 ㉣ 예상독자 : 미술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글의 첫 부분에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화가를 나열했구나.
- ㉤ 글의 구성 : 데페이즈망 기법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 기법에 대한 의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체계적이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십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서단장 당시 그의 작품 「콜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 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낸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 을/를 일깨운다.

저하로 이어진다. ㉞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게 되면 편하게 용돈을 받아 쓸 때는 모르던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28.④ 29.② 30.③ 31.③ 32.④ 33.⑤ 34.⑤ 35.③ 36.④ 37.⑤ 38.⑤ 39.⑤ 40.②

3. 너를 기다리는 동안

1.③ 2.② 3.⑤ 4.⑤ 5.⑤ 6.① 7.⑤ 8.④ 9.④ 10.① 11.⑤ 12.③ 13.⑤ 14.① 15.② 16.㉞ 아주 오랜 세월 ㉞ 아주 먼 데 17.⑤ 18.② 19.③ 20.① 21.⑤ 22.② 23.③ 24.①② 25. (가)의 주제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다. 26.④ 27.④ 28.③ 29.④ 30.대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4-(1) 음운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고],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캐따] 8. ⑤ 9.① 10.④ 11.② 12.㉞ [달근] ㉞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㉞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ㄹ'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62.⑤ 63.① 64.⑤ 65.④ 66.⑤

4-(1) 한글 맞춤법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싹둑싹둑, 회전롤→회전롤, 좇점→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백분율, 댓가→대가, 썰어야→썰야(썰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㉞ 빗물, 아랫마을 ㉞ 뒷일, 깃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롤→선율, 몹씨→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라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㉞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㉞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㉞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똥그려:㉞, 씹슬한→씹쓸한:㉞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를 쌨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돼요→돼요 ㄷ. 뵈요→뵈요 ㄹ: 순대국→순댓국 65.② 66.② 67.③ 68.④ 69.①

4-(2) 국어의 역사성

1.⑤ 2.④ 3.① 4.⑤ 5.㉞ ㄱ, ㄴ, ㄹ, ㅁ, ㅇ ㉞ ㄹ, ㅁ, ㅂ, ㅅ, ㅇ ㉞ ㄹ, ㅁ, ㅂ, ㅅ, ㅇ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爲왕후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야'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興國'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홍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

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초, 스몯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쌈, 놈'이 그 예이다. 20.㉓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㉒ 23.㉓ 24.㉓ 25.㉓ 26.㉒ 27.㉑, ㉒, ㉓, ㉔, ㉕, ㉖ 28.㉓ 29.㉔ 30.㉓ 31.㉕ 32.㉑㉓ 33.㉑ 34.㉕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㉕ 37.㉔ 38.㉑ 39.㉓ 40.㉑ 41.㉔ 42.㉕ 43.㉕ 44.1) 어두자음군, ㅞ, ㅟ, ㅠ (2) 어렸슬, 잇서서 45.㉓ 46.(1) ㉑ 소리 나는 대로, ㉒ 어법에 맞게 (2) ㉑ 말쌈, 놈 ㉒ 축소 47.㉔ 48.㉓ 49.㉔ 50.㉔ 51.㉕ 52.㉑ 53.㉔ 54.㉒ 55.㉓ 56.㉔ 57.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실용 정신 58.훈민정음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 우리 것이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든 '창조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기에 편하게 만들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나타난다. 59.8종성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0.초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ㅁ, ㅂ, ㅅ, ㅇ'을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ㅋ, ㅇ, ㄸ, ㅌ, ㅍ, ㅊ, ㅍ, ㅎ, ㅎ, ㄹ, ㅅ'를 만들었다. 종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ㅇ, ㅡ, ㅣ'를 만들었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 'ㅊ, ㅌ, ㅕ, ㅖ, ㅗ, ㅛ, ㅜ, ㅠ, ㅋ'를 만들었다. 종성은 종성부용초성에 의해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61.밍ㄱ노니 : 밉글- + -ㄴ- + -오- + -니

5-(1)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1.㉓ 2.㉒ 3.㉒ 4.㉔ 5.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6.㉑ 7.㉔ 8.㉓ 9.㉑ 10.㉑ 11.㉔ 12.㉒ 13.㉑ 14.㉔ 15.㉒ 16.㉓ 17.㉕ 18.㉒ 19.㉔ 20.㉕ 21.(1)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어울려서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이다. (2) 낯설게 만드는 합성은 사람이 아닌 조각상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조각과 피의 결합을 낯설게 하여 일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22.㉑ 23.㉕ 24.㉔ 25.㉔ 26.㉔ 27.㉓ 28.㉒ 29.㉔ 30.㉑ 31.㉒ 32.㉑ 조합하기, ㉒ 낯설게

- 끝 -

총만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1-(1) 동짓돌 기나긴 밤을

1.②

① (가)에만 해당. ③ (나)의 '다시 만나라'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나타내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지 꼭 다시 만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님. ④ (나)는 현대 자유시인 것인지 연시조가 아님. ⑤ (나)가 자연물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 관조적인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응, 헛갈리지 마!◀

음수 vs 음보

ㄱ.음수: 글자 수

ㄴ.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2.①

㉠ 가정적 상황을 설정은 없음. ㉡ 상대가 설정된 건 아님.
㉢ 감정을 이입과 원망의 정서는 없음. ㉣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2.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ㄱ.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3.②

▶②도 (가)처럼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함.
① 사람이 늙어 사라져 감을 아쉬워함. ③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④ 임금의 돌아가심을 슬퍼함. ⑤ 지극한 효심.

4.①

② 서리서리 (널다) - 구뿔구뿔 (퍼다)

7.④

▶음성 상징어는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8.⑤

▶입을 기다리는 애뜻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입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아님.

9.③

▶의성어는 없음.

10.④

㉠ ㉡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 ↔ 어른 님 오신 날 밤

㉢ 동지(冬至)스들 ↔ 춘풍(春風)

㉣ 서리서리 너털다가 ↔ 구뿔구뿔 퍼리라.

11.⑤

▶⑤만이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고 나머진 입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나타냄.

12.①

▶(나)는 성실과 정직과는 상관없음.

13.①

▶서정 갈래 :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목소리로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문학이다.

14.③

① 평시조임. ② (가)는 4음보, (나)는 자유로운 율격 형성
④ (나)에만 해당. ⑤ (나)에서 과장과 점층은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3음보 vs 4음보

ㄱ.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 과장법의 종류

ㄱ.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ㄴ.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3. 점층법 vs 점강법 (★)

ㄱ.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ㄴ.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16.④

㉠ ㉡ : 외로운 시간 ㉢ ㉣ :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 ㉥ : 정든 사람. 사랑하는 입. ㉦ ㉧ : 굽이굽이 퍼리라.

17.⑤

▶㉦ :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